

바닥재, 층간소음 차단 소재 개발

미래부, 화학물질 유출 경보센서도 ... 사회문제형 기술개발 주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화학물질 유출, 항암치료 부작용, 층간소음 등을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삶에 직결된 5개 분야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유출은 작업자의 몸에 쉽게 탈부착 유해물질을 검출해 경보를 울리는 센서를 개발해 해결할 방침이다.

항암 표적치료제의 낮은 효율성과 높은 부작용 비용은 암환자별로 치료효율이 높은 항암제를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 이웃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바닥재, 능동형 소음저감 기술, 고성능 바닥구조 등 기존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완화 기술을 개발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에는 청소년 비만, 치매 등도 포함됐다.

미래부는 2013년 90억원을 투입해 화학물질 유출, 청소년 비만, 항암치료 부작용, 치매 등 4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층간소음 해결 기술개발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관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1>